

요시무라 무네히로의 회화는 항상 장면 앞에서 관객을 잠시 멈춰 서게 만든다. 그의 화면은 조용한 리듬을 유지한다.

그의 그림에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비어 있는 장면도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의미의 과잉이나 결핍이 아니라 리듬의 차이에 가깝다.

말이 많은 장면과 말이 없는 장면이 서로를 보완하며 화면 전체의 흐름을 완성한다.

작가는 스스로를 “엄격한 구도 지상주의자”라고 말한다. 구도는 그의 회화에서 감정이나 서사보다 먼저 화면을 지탱하는 질서다. 인물, 건물, 산과 같은 배경은 모두 계산된 위치에 놓이며, 그 결과 그의 그림은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정지된 순간을 가진다.

그는 열 점의 그림을 그리면 대략 한 점은 인물이 없는 장면이 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러한 그림을 음악에 비유해 ‘in·stru·men·tal 회화’라고 부른다. 이는 그가 좋아하는 밴드가 앨범마다 반드시 한 곡의 연주곡을 넣는 방식과 닮아 있다.

인물이 사라진 화면에서도 요시무라 무네히로의 회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여지를 남기며, 관객이 각자의 속도로 그 장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그림들은 이야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장면 안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는 일부 리터칭된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기존의 그림 위에 새로운 이미지를 덧그리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물감의 밀도 또한 자연스럽게 더해진다. 그 결과 리터칭된 작품들은 새로 그려졌기보다오랜 시간 천천히 손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른 그림처럼 다가온다.



Ski club members posing in front of a large window with red curtains at a lodge at night

100x80.3cm Oil on canvas 2026



Departure 2026 100x80.3cm Oil on canvas 2026



parfait 100x80.3cm Oil on canvas 2026



Magic Mountain Morning 100x80.3cm Oil on canvas 2026



Magic Mountain at Dusk 72.7x60.6cm oil on Canvas 2026



Cape Cod in a cool summer 45.5 x 38 F8 oil on canvas 2025



public hall 90.9 x 72.7 cm Oil on Canvas 2026



Flower_field_at_sunset 53 x 45.5 F10 oil on canvas 2025



Muddy road 72.7 x 60.6 cm 2024



discarded large furniture 72.7 x 60.6cm Oil on Canvas 2025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72.7 x 60.6 cm Oil on canva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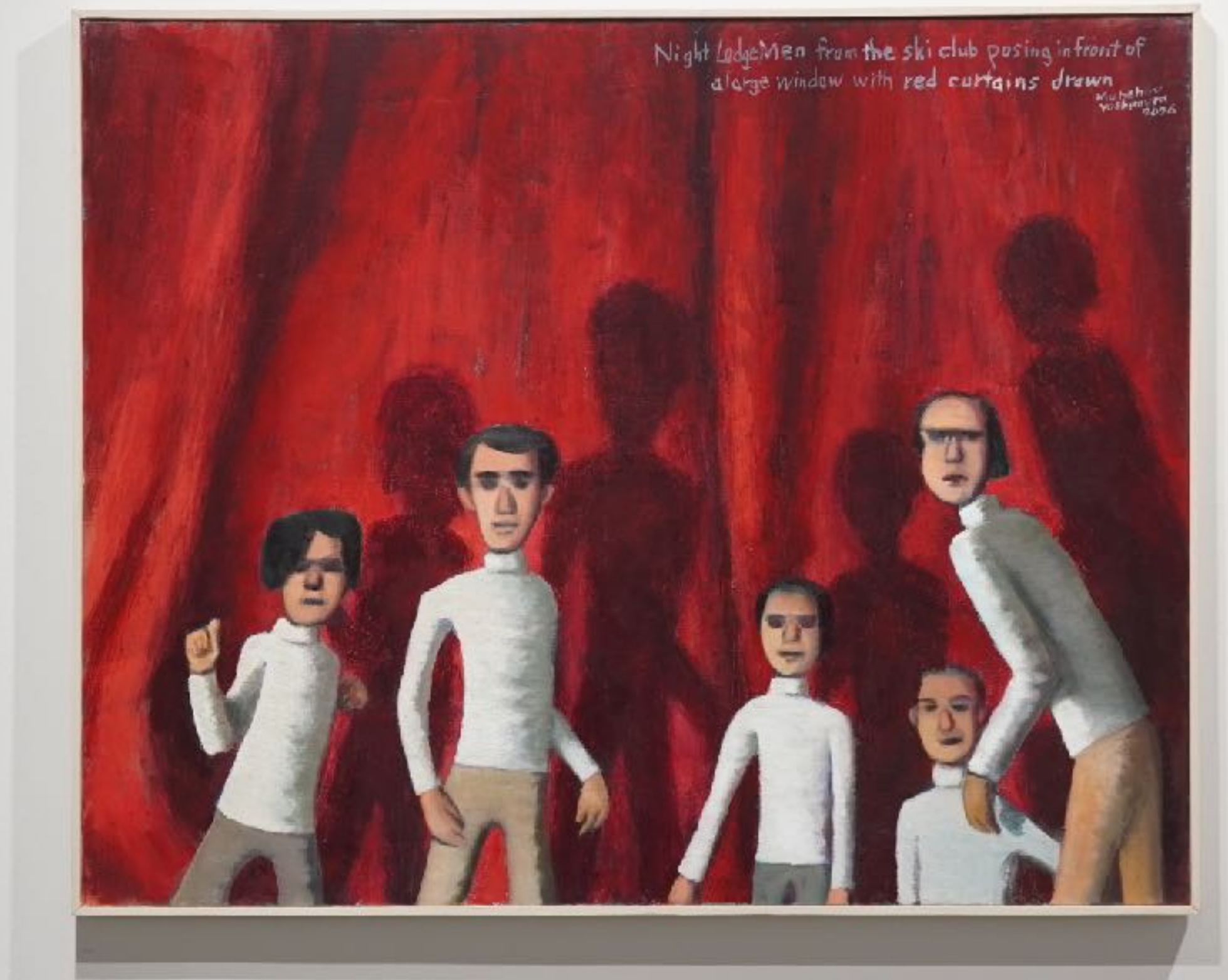
The Palomar series, it's my son 116.7 x 116.7 cm Oil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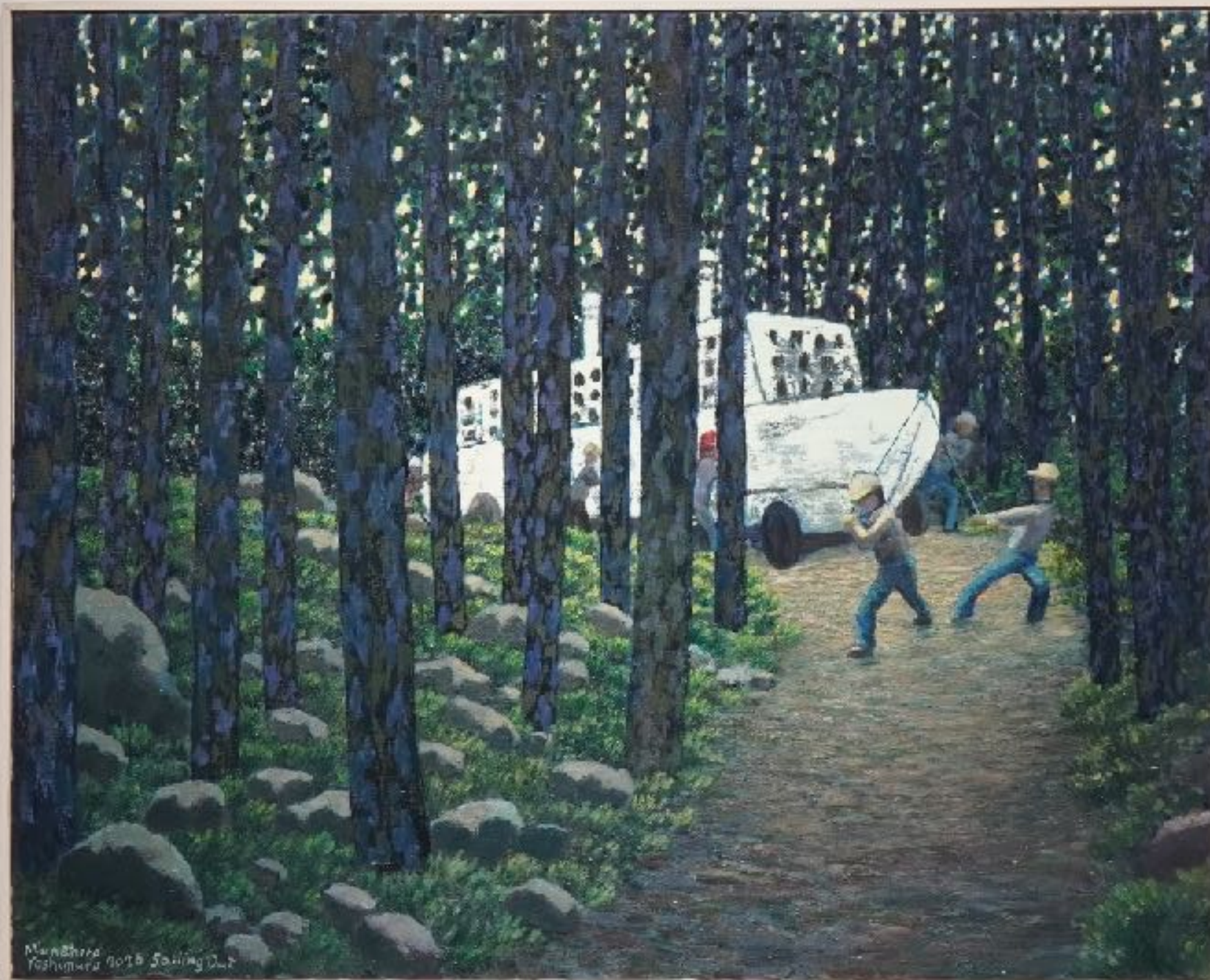
My friend 100 x 72cm Oil on Canvas 2026



Under Construction 90.9x60.6cm 2016-2020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